



광양시 4차산업혁명 기술

담은 스마트도시 만든다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 완료보고회 개최

광양시는 최근 시정 상황실에서 정협복 광양시장 주재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방옥길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실과소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는 도시 인프라 시설에 4차산업혁명 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화기술을 접목해 안전, 환경, 교통, 방범, 에너지 등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도시상(都市像)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용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관련 법에서 정한 15개 항목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다.

계획에는 환경분석, 정보보호, 추

진체계 등 기본적인 내용과 핵심사항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조성, 스마트도시 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

스마트도시 기반시설로는 통합운영센터와 정보통신망인 자가통신망 확보방안이, 스마트도시 서비스로는 기반시설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30개 서비스가 발굴·제시됐다.

이날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순천대 심준보 교수는 "실행단계에서는 수요자인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리빙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는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는 이번 완료보고회를 토대로 국토부 승인, 민간 협의체 마련, 조례 제정, 국비 공모 추진 등 스마트

시티의 기반과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협복 시장은 "시는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가 시대적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10월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을 추진해 왔다"며 "4차산업혁명의 기술을 담아내는 스마트도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위원회와 자문기구 구성,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투자유치, 드론 시범공여 확보, 3D 프린터 활용용 '메이커 스페이스' 개소,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 보급 사업사업'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광양=김승호 기자

영광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최우수 기관'

영광군에서 위탁하고 사)이름다운청소년을 영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2018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여성기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중학교 1~2학년 총 40명 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영광군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진의 열정적인 노력과 영광군의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유관기관과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

특히 이번평가에서 자기성장프로그램과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 중심으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전인격적 성장을 유도한 기획 및 실행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서희권 기자



순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가 오는 18일부터 2019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40명이며, 지역은 서면, 배곡동 외 11개동이 해당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순천시가 지원하고 순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운영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종합건강검진, 귀가차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동아리 활동(드론, 댄스, 스포츠, 텁텁기구기), 청의융합 ICT 수업 등을 개설·집중할 계획이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등 부족한 학습과 뉴스 포츠, 연극, 미디어, 음악, 미술 등

전문체험을 지원한다.

주말 프로그램으로는 아외현장체험, 예술·문화공연, 직업체험 등의 활동을 하며, 캠프·부모교육, 특강·발표회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생활지원으로 급식, 상담, 종합건강검진, 귀가차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동아리 활동(드론, 댄스, 스포츠, 텁텁기구기), 청의융합 ICT 수업 등을 개설·집중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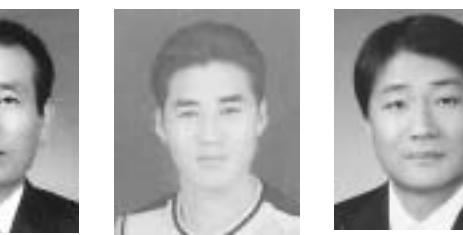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이며 취약계층 청소년을 우선 접수하고, 26일부터 모집정원이 마감될 때까지 접수한다.

순천=김승호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넓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동3길 2(전남도청 옆)



구례군, 군민복지 실현 위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한국명인학교 창립과 명장·명인 인증 수여식



미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복지제도 안내 및 복지 민원 상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체면 맞춤형복지상담장을 중심으로 5일부터 면내 모든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5일 금평경로당과 월평

경로당에서 실시한 상담실에는 약 50여 명의 주민들이 찾아와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맞춤형 복지 상담을 받았다.

또한, 즉석에서 저소득층 및 기초연금수령자에 대한 공공요금·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도 이루어졌으며,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당뇨·혈압 등 만성질환 검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상담을 마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몸이 불편하여 면사무소에 나가기가 힘들었다"며, "직접 찾아와서 복지 상담과 만성질환 검사를 해줘서 군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동해마을 정덕만 이장은 "복지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공무원이 주민들께 설명한 사례는 미들이 태동된 아래 처음이고, '국민연금 생애 첫 달 본인부담분 지원' 시책은 전국 면단위에서 최초 사업일 것이라"며 물기 전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구례=박진호 기자

순천시, 내년도 국고 4333억원 확보

순천시는 최근 내년도 정부예산에 올해 4231억원 보다 102억원이 늘어난 4,333억원의 국고 확보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국고예산은 현안사업 33건 357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62건 382억원, 국가직접시행사업 67억원 및 복지와 농업 등 연례 반복사업 2897억원 등을 포함 총 4333억원이다.

국회 증액사업은 총 4건, 61억 원으로 이 중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민선7기 공약이다. 이 사업

은 순천시와 승주군 통합 후 슬립화가 심한 승주읍 소재 구 승주군 청 부지에 남해안권의 유기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중 용역비와 설계비 6억 원이 국비로 반영되었다.

전라도와 경상도 있는 유일한 철도망인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철교 사업도 이번에 철도 기본계획수립비 10억원이 반영되어 1930년에 건설된 후 88년만에 철도 현대화에 착수하게 됐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23억원을 비롯해,

수출형 기계부품기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19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0건 167억원,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관리비 40억원 등이다.

제난재해예방사업은 주암용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원,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0억원이 반영되어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요사업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사업 12억원, 제2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0억원, 국제문화체험장 조성사업 3억원, 낙안·상사 간 국지도 시설개량 10억원 등이다.

순천=홍경석 기자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농수산물 취급 업체 2개사 선정

여수광양항만공사

아 등지로 전량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다.

광양항은 국내 타항민을 통해 수입되던 수산물을 광양항을 통해 수입해 냉장 및 기공 후 재수출하게 된다. 호남권 농수산물을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에 수출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중국 기업인 HAM(주)와 국내 4개 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쥬광농 nghiệp이다.

HAM은 중국, 미국 등지에서 원료를 수입한 뒤 영유아 조제분유를 제조·공급해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등지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협상을 거쳐 최종

입주 대상기업으로 확정되면 90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맺고, 이후 90일 이내에 일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시설을 건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공사는 이번 입주기업 선정을 통해 연간 24만TEU 이상의 농수산물 물량 유지 및 지역 내 1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국인투자 금액도 최소 1,000만달러 이상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상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법 안내